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성가정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
1505~1506, 목판에 템페라, 지름 120cm
우피치 미술관, 이탈리아 피렌체

입당송 | 루카 2,16 참조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 | 집회 3,2-6.12-14<또는 1사무 1,20-22.24-28>

화답송 | 시편 128(127),1-2.3.4-5(◎ 1)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 콜로 3,12-21<또는 1요한 3,1-2.21-24>

복음환호송 | 콜로 3,15.16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 루카 2,41-52

영성체송 |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신비를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랑



윤웅렬 하삼바오로 신부 | 등촌1동성당 부주임

성가정(聖家庭), 거룩한 가정. 우리 신자들 안에서는 가족 전체가 가톨릭교회의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성가정’이 되었다.’ 말하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세례성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가 씻기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거룩하다면 당연히 성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분들이, 이 성가정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직 성당에 나오지 않는 가족을 채근하곤 합니다. 때때로 그 ‘거룩한 독촉’에 자못 부작용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는, 열두 살의 예수님이 온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축제를 지내러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일이 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 축제 때는 온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붐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부모님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루카 복음서가 전해주는 것처럼, 아이를 찾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말이 사흘날이지, 그 어린 아이를 예루살렘 복새통에 잃어버린 채로 보낸 그 삼일 간의 시간 동안 부모님의 애간장이 얼마나 녹아 녹아내렸을까요.

마침내, 성전에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태연히 율법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이입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부모의 속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럴 때, 보통의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자식,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하느냐?’ 1976년에 작고한 막스 에른스트(Max Ernst)라는 독일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1926년에 그린 자신의 한 작품에서, 어린 예수님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 불기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성모님의 모습을 표현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얼마나 세계 후려쳤는지, 어린 예수님의 후광이 바닥에 내동댕이쳐 질 정도였으니까요. 불경한 그림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룩한 부모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전해줍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루카 2,51) 사흘 동안, 당신들 속이 정말 시커멓게 타버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과 성 요셉은 그 순간에 소년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보셨습니다. 자신의 속 타는 마음보다, 아이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를 먼저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이 거룩한 부모의 사랑에, 어린 예수님 역시도 존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표현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치며, 서로의 신비를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이 아름다운 나자렛 성가정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가정 안에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성가정

이 성화는 원형(=톤도)의 패널 그림으로 아놀로 도니가 결혼을 기념해 주문했기에 <톤도 도니>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영적 아름다움을 외적으로도 아름답게 표현한 반면, 미켈란젤로는 성가정의 영적인 결속력을 ‘단단하고 강한 육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성화는 성가정이 가족 간의 친밀함과 그리스도교 신비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티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 있는 시련, 늦은 감사



장희진 로사 | 배우

저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딱히 무명 시절이라고 할 것도 없이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모델로서도, 배우로서도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간절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꽤 오랫동안 연예계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까지 여기며 ‘이 역할은 분량이 너무 적다, 이 역할은 내가 돋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들어오는 작품을 거절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런 저의 오만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데뷔한 지 십여 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작품 수가 현저히 줄고 있었습니다. 작품이 준다는 건, 더 이상 배우로서 매력 없다는 뜻과 같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높았던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찾던 이들이 이제는 나를 등지고 떨어져 버렸다는 서운함까지 더해져 우울함마저 느꼈습니다. 자괴감과 우울함은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를 꿈꾸며 달려왔고 지금까지도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 일을 못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갑자기 광야에 내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때 ‘감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끝자락에 몰렸을 때 붙잡을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나를 걱정하며 나보다 더 우울해하거나, 잘난 척하더니 뽀퐁이라고 비웃을까 봐 털어놓지 못한 녀두리를 주님께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주님께 감사하자, 줄줄이 감사할 거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것 또한, 주님의 선물이었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

르고 내가 누리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 착각하며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감사함을 알게 되자, 제가 겪는 어려움도 결국에는 주님 계획 안에서 감사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겪는 저의 수많은 감정이 저의 배우 인생에 큰 양분이 되었으니까요. 그전에는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무에게나 매달리는 간절함이 무엇인지,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감정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해야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짐작하고 추측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연기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할 일투성이인 것이죠.

감사합니다, 주님! 즐거울 때는 주님의 은총임을 알기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그 순간에도 저와 함께하심을 알기에, 이마저도 주님께서 쓰실 것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글구성 서희정 마리아작가

한
낱
목
상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독재’와 싸워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1년 12월 26일 성가정 축일 삼종기도
훈화 중, 가정의 불화는 자기 말만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반대로 휴대폰만 보면서 침묵하는 등
자기만 옳다고 시위하면서 비롯됨을 강조하시며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에필로그 - 마르코가 전한 복음의 시작, 그리고 우리



이영제 요셉 신부 | 문화홍보국 부국장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는 말씀과 함께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명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로 통치되는 나라로서 결코 저 멀리 죽은 뒤에나 갈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와있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이를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주변의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 곁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죄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무한한 용서를, 병고에 좌절하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들에게는 참된 해방의 기쁨을 전해주시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침을 전하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 선포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열두 명을 제자로 뽑아 세우셨습니다. 그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당신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보고, 느끼고, 체험케 하시어 당신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마지막 날까지 전파되도록 교육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 과정 중에 제자들은 스승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걸어가셔야 할 수난과 죽음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잡히시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나는 치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 인류의 죄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되살아나셨습니다. 이 믿기 힘든 놀라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죽음의 권세에 내버려두지 않고 당신만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은총을 베풀어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여 모든 이가 자동으로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남기신 사명,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에서 생기는 기쁨과 평화를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러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실천한 제자들의 모습을 전하며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마르 16,20)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값싼 믿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느님께 투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코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며, 우리가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비를 얻으려면, 먼저 자비를 베풀어라 (마태 5,7 참조)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누구나 꿈꾸는 ‘행복’. 오늘은 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마태오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행복을 선포하시는 ‘행복 선언’(마태 5,3-12)이 나오는데, 각 구절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서 대구를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³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⁴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⁷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⁸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⁹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¹⁰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처럼 행복 선언에서는, 행복이 선언된 후,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게 될 것인지 언급되고, 이어서 그들이 행복하다고 불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후반부인 3~12절이 원인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리스어 원문에서 3~12절을 이끄는 접속사 *οτι*가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 선언 가운데 바로 7절에서만, 행복한 이들을 묘사하는 부분(7~)과 그들이 행복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7~)에서 같은 단

어가 반복됩니다.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것은 그 외의 구절,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4절 참조),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9절 참조) 등 다른 구절과 확실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마태오복음 5장 7절이 강조하는 바는, 하느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은 마태오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매정한 종의 비유’(18,23-35)가 좋은 예입니다. 만 탈렌트를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하지만 그 종은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다른 동료를 그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지요.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주인은 만 탈렌트를 빚졌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마태 18,33)

행복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풀 때, 하느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 탈렌트를 빚진 종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자비에 감사하고, 그것을 닮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마음



임여주 아네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의 눈빛이 향하는 곳에 나의 눈빛도 향하게 되고, 그 사람이 스치듯 말한 한마디가 수수제끼처럼 다가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아는지 궁금하고,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지 궁금하여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커다란 행복을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고, 역시 생각지도 못할 만큼 큰 서운함에 눈물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티안 그르니에의 청소년 소설 《내 남자친구 이야기》와 《내 여자친구 이야기》에서는 이런 청소년기 사랑의 과정이 사뭇사뭇 걸음을 걷듯 그려집니다. 《내 남자친구 이야기》는 잔느의 입장에서, 《내 여자친구 이야기》는 피에르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슈베르트 발표 말이야, 좋던데.” (《내 남자친구 이야기》, 25쪽) 클래식 음악에 문외한인 잔느가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인 피에르에게 말을 건 그날,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사실 피에르 입장에서의 시작은 그보다 이전이긴 했습니다. 공원에서 노숙자에게 해맑게 말을 거는 잔느를 본 순간부터 이미 피에르는 잔느에게 반해버렸던 것이죠. 음악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입니다. 지하실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악보와 녹음테이프를 우연히 발견한 잔느

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 애쓰고, 피에르는 그런 잔느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피에르와 함께 아빠의 음악 세계를 배워가면서 잔느는 잃었던 아빠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고, 피에르는 잔느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 더더욱 열심히 피아노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둘에게 사랑은 서로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채워주는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 대의 사랑은 조심스럽습니다. 동시에 거침이 없습니다. 혹여나 상대방에게 내 진심이 잘못 전해질까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 외치고 싶어 과감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청소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상대와 내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가끔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내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함께 성장하는 기쁨은 그 무엇보다 뿌듯하다는 것을, 연애 기간 동안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어찌 보면 기적과 같습니다. 내 행복만큼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에게 다정한 마음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도 모르게!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얼마 전에 일이 있어 관광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들렀다가 김포공항을 거쳐 광주광역시까지 가는 일정이었죠. 6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앉아 있었으니 제법 긴 여정이다 싶기도 했지만, 좌석에 가만히 앉아 있던 터라 아주 힘들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죠.

어릴 적엔 차멀미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시내 가까운 곳을 가려 해도 멀미 때문에 두세 정거장 가다 내리고, 속이 진정되면 다시 버스를 탔다가도 금세 내려야 했죠.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가을이던가요, 저도 모르게 멀미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오래 버스를 타도 아무렇지 않은 제가 새삼 대견하게 느껴지더군요.

나이를 먹으면서 달라진 것은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운 것을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매운 것이 제법 당깁니다. 겹이 많아 한의원에 가서 침 맞는 것을 질색했는데, 지금은 침도 의연하게 잘 맞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입맛이라든지 몸의 상태,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겪게 되는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사소한 부분에서는 달라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모습은 변화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 내 성격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내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애써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같은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도움을 얻고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이런저런 고민과 성찰을 나누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마음 깊은 곳의 근원적인 변화, 영적인 차원에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오롯이 나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은 이미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하느님께서 분명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올 한 해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찾아보면 어떨까요? 커다란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고 사소한 변화라도 나도 모르게 달라진 부분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느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마르 4,26-27)

성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성탄 구유 안에 들어가는 조각상은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성탄 하면 반짝이는 전구로 장식된 성탄 트리가 떠오릅니다. 또 구유가 빠질 수 없죠. 성탄이 되기 전부터 성당 마당에 준비된 구유를 보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성탄 구유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전하는 루카복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그분께서 누우신 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장소 위에 지었다는 베들레헴의 기념 성당을 찾아가 보면, 지금도 그 자리에 구유를 놓아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풍부한 상징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동물들에게 ‘먹히는’ 먹이를 놓아두는 곳에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먹히도록’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자리하신 셈이니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 상징을 묵상하시며 “구유에 누워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사건은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처음으로 구유를 꾸며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재현한 이래, 교회는 복음의 풍부한 의미를 떠올리며 조각상들을 구유 안에 배치했습니다. 가령, 구유 옆에는 항상 소와 나귀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이라는 말씀인데, 소는 유대인, 나귀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소와 이방인들에게서 나온 나귀가 모두 같은 구유에 나와 말씀의 먹이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비치했던 조각상들 이외 다른 것들은 성탄 구유에 넣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



지난 2023년, 성 프란치스코께서 만드신 첫 구유를 본따
성 베드로 광장에 설치한 구유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2019년에 성탄 구유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교황 교서 〈놀라운 표징〉을 통해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부유함만 챙기는 사람이나 거지 등 우리가 구유에 다른 상징적인 인물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됐든 그들도 다 아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구유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거나 쫓아낼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오히려 구유에 추가된 더 많은 조각상들은 온 세상을 향해 누구에게나 선포되는 복음의 기쁨을 잘 표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 성당 정문
(출처: 위키미디어)

한편, 구유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창조주의 겸손함이야말로 우리의 모범입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장소 위에 지은 성당의 정문은 참으로 높이가 낮습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고서는 성당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 구유에 아기 예수님까지 모셨고, 이제는 저 멀리서 별을 보고 달려올 동방 박사들의 자리만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그 곁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앉아야 할 우리의 자리 또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요.

오늘(12월 29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이날부터 '가정 성화 주간(12월 29일~2025년 1월 4일)'이 시작됩니다

제24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주보' 필진 안내

표지 사진(성화)	선정 및 설명: 오주열 신부
생명의 말씀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 강병완 신부, 김민 신부, 김영훈 신부, 김형균 신부, 김현웅 신부, 김홍주 신부, 권혁준 신부, 안승태 신부, 윤용렬 신부, 인만희 신부, 이영제 신부, 이형진 신부, 전두병 신부, 조성풍 신부, 조영식 신부, 지영현 신부, 차바우나 신부, 최광희 신부, 홍사영 신부
사랑의 손길	(재)바보의나눔
가톨릭 신학	방종우 신부, 박진수 신부, 전인걸 신부, 조한규 신부
성경 속 희망의 순례자들	김영선 수녀
청소년면 특집	청년꾸르실료, 청년성서모임, WYD뉴스레터팀, 은성제 신부, 최남식 신부, 백근재, 임여주 교수
가톨릭교리상식	사목국 기획연구팀 순교 영상 정민 교수
도서칼럼	구본석 신부 영성심리칼럼 민범식 신부
한컷목상	강신성 작가, 김현진 작가, 박미정 작가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주보'를 통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필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주보는 [홈페이지 cc.catholic.or.kr]와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설 성묘 안내

미사: 1월 26일(주일) 오전 10시 / 식사 및 성묘-개별 준비
차량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 (02-727-2225)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 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12월 30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매 1만 5천 원-조기 마감 가능 / 1월 23일 이후 취소시 환불 불가) /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1588-9769 천주교용인추모공원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설 성묘 안내

미사: 2025년 1월 26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내 1층 식사 및 성묘-개별 준비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0년 1월 5일 박은중 요한 신부(40세)
- 2022년 1월 1일 송광섭 베드로 신부(85세)

교구청 알림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정시)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원서접수: 12월31일(화)~2025년 1월3일(금) 인터넷접수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가톨릭 인성교육 봉사자 모집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인성교육' 봉사자를 학교사목부에서 모집합니다
대상: 견진성사 받은 신자, 만 20세~60세(2005~1965년생)
곳: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자격교육: 2025년 1월7일~9일, 1월14일~16일(2주간 총 6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홈페이지에 서류양식)
접수기간: 11월26일~2025년 1월3일
회비: 10만원(30시간 특강, 식대, 간식비 포함)
문의(기타): 02)553-7320(일·월 휴무) 학교사목부 사무실 / 홈페이지(www.kycc.or.kr)

2025년 상반기 복사학교 신청 안내(응문청소년수련장)

때: (금) 오전 10시~(토) 오후 4시

1차(중급)	2월22일(토)~23일(일)	5차(초급)	4월4일(금)~5일(토)
2차(중급)	2월24일(월)~25일(화)	6차(초급)	5월30일(금)~31일(토)
3차(초급)	3월21일(금)~22일(토)	7차(초급)	6월6일(금)~7일(토)
4차(초급)	3월28일(금)~29일(토)	8차(초급)	6월13일(금)~14일(토)

신청방법: 응문청소년수련장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신청일: 2025년 1월15일 10시 / 문의: 010-7931-6985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서울대교구 가톨릭청년미술가회 정기전 (연예 위)
등대 - 명동대성당: 전관
전시일정: 12월24일(수)~31일(화)

발달장애인 첫영성체 교육 담당자 연수

때, 곳: 2025년 1월5일(일)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회비: 5만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이메일(cafema@cafema.or.kr) 접수 / 양식-홈페이지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신년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2025년 1월9일(목) 오후 2시~3시
곳: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집전: 김동원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 선교봉사자) / 문의: 02)727-2407, 2424

2025 구약성경의 역사적 배경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내용: 구약의 법전들과 신명기 신학의 역사적 배경
때, 곳: 2025년 1월3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강의: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2025년 상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지각경 과정 모집

원서접수: 2025년 1월6일(월)~24일(금)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의 요망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교황의 생명교실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누구나 / 회비: 1만원
내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때: 2025년 2월5일·12일·19일·26일(수) 오후 8시~9시30분 / 강의방식: 온라인(Zoom)
문의(신청): 02)727-2351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신임사목위원 교육(온라인)

대상: 본당 신임사목위원 / 회비: 1만원(2025년 1월8일 마감)
교육기간: 1월15일(수)~2월28일(금)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수강 방법 추후 안내)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명동대성당 2025년 하반기 혼인예약

7월~12월 2025년 1월10일(금) 14시, 대성당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천 순서번호표 배부.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수령 가능
이중추천,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 / 문의: 02)774-1784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1시·14시·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계좌이체·카드 불가)
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피정동반자: 조현철 신부(예수회)
 때: 2025년 2월6일(목) 17시~9일(일) 16시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회비: 30만원
 문의(접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부부는 예수님이 친히 맺어주신 짝이며 예수
 님을 향해 함께 가는 순례자이다 / 회비: 1만원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일 둘째주(토) 2025년 1월11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2025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내용: 새해맞이 성모님 봉헌식, 미사, 성체조배,
 성체거동 / 주최: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미사집전: 구요비 주교 / 대상: 가톨릭 청년
 때, 곳: 2025년 1월4일(토) 15시~18시, 가톨릭 의
 과대학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서울성모병원)
 예약 계좌: 국민은행 794001-04-122952
 회비: 1만원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지혜의 샘 프로그램 / 문의: 010-3248-9705

곳: 지혜의 샘(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1-1)
 1) 목요 치유 피정: 2025년 1월2일 10시30분~17시30분
 강사: 한연홍 신부, 한영임 회장
 2) 기초 히브리어 본문 읽기 특강
 내용: 창세기 3장 히브리어 본문 읽기(회람이 알파벳과
 주기도문 읽기) / 강사: 서한석 신부(가톨릭대 학부대학장)
 때: 1월8일·15일·22일·2월5일·12일·19일 19시~21시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2월31일 김현우 신부 2025년 1월7일 김중국 신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2025년 1월17일(금)~19일(일) 신우식 신부(원주교구)
 2025년 2월14일(금)~16일(일) 김선태 주교(전주교구)
 2025년 3월14일(금)~16일(일) 서상범 주교(군중교구)
 2025년 4월17일(목)~20일(일) 성주간 피정(기도학교)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째(금) 2025년 1월3일 10시~15시30분
 다네이영성수련(대침목) 1월10일~12일(2박3일)
 토요 성모신심 기도·미사 매일 셋째주(토) 1월18일 10시~12시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제·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가정선교회 새해맞이 2025년 1월 피정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때, 곳: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1월4일(토) / 한철호 신부,
 김경희 수녀
 성가정 영성 피정 1월8일(수) /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1월18일(토) / 한철호 신부
 찬양 피정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8-1601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5분, 역삼동성당 경
 환당(주차 가능) / 찬양미사·말씀·안수: 양홍 신부

송구 영신 철야 기도회

때, 곳: 12월31일(화) 21시30분~2025년 1월1일(수) 4
 시(미사·안수 있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김영철 신부(전국대표담당 의정부교구담당 4지구장)
 때, 곳: 2025년 1월15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교육

시스피나 음악원 수강 모집 / 문의: 010-9842-8818
 성가 발성, 그레고리오 성가(지휘·반주·기초)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교육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02)727-2471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2025년 1월6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소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2025년 2월5일~19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 문의: 02)3276-7799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영성·교리·신학 통합강
 좌와 영적수련) / 2025년 1월3일까지 접수
 때, 곳: 화요일 오후 14시~16시·목요일 저녁 19시
 ~21시, 비대면 온라인(8주 과정) / 담당: 권효섭 신부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2025년 1월17일(금)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0시50분~15시40분(2년, 주5일)	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0시50분~15시 40분(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정)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가르멜재속회원 모집(알베르토공동체)

대상: 만 55세 이하 세례 견진자
 모임: 매월 넷째주(일) / 문의: 010-7673-5013

가톨릭시니어합창단 2025년 단원 모집

대상: 55세 이상 신자 누구나
 모집기간: 2025년 1월1일~31일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평화를 노래하는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내용: 연탄나눔, 농촌체험, 환경캠페인, 해외봉사, 사회
 복지시설방문 / 대상: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초·중·고3
 곳: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
 문의: 02)926-3440, 010-6880-9605(www.stvin.or.kr)

2025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
 을 살고자 하시는 견진 받은 16세 이상 교우
 지원서 교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308호
 2월28일까지 접수 / 문의: 02)779-3881(근무일:
 토·일·월), 010-9600-6358 작은형제회 수도원,
 02)793-2070 콘벤뚜알 수도원, 010-3371-8790 카
 푸친 수도원, 010-8477-6489 청년회(유프라 / 만 35
 세 미만), 010-9600-6358 주중형제회(수요일 오후)

미사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2월31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
 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2025년 1월3일(금)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929-2977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때: 2025년 1월16일(목) 낮 12시 / 문의: 02)753-8765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 02)3142-4434
 때, 곳: 2025년 1월3일(금) 11시10분, 절두산순교성지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2025년 1월4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
 립회관 3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안내

신촌 세브란스병원 가톨릭 원목실

주일미사 오후 5시 / 병자성사 외 병실 방문
 때: (화·일) 9시~17시 / 010-8502-9775 원목실 수도자

삼양동 선교봉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롭자비회수녀회)

바보의나눔 유튜브채널 '러브온탑'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대한민국 탑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을 담아 '킥을 쌓은 만큼 기부가 되
 는' 신개념 기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주(금) 오후 6시 스타들과 함께하는 러브온
 탑,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러브온탑'을 입력하세요
 (www.youtube.com/@러브온탑) / 협찬 문의: 02)727-
 2507(fund@babo.or.kr) 바보의나눔 모금홍보팀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심리치료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따숨 젊은이 기도모임 매일 첫째·셋째주(일) 19시30분~21시30분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새해 추천 도서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는 새해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2코린 5,17



신간

2025 회년 여정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6천원

깊은 믿음, 살아있는 희망으로 가득한
2025 회년을 보내는 방법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년 메시지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희망의 순례를 떠날 수 있는
2025 회년 특별 노트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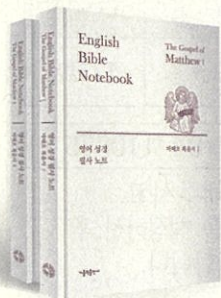
하루를 위한 기도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대)2천5백원 (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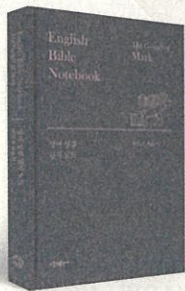
매일 주님을 만나는
내 손안의 작은 기도서

일상 속 다양한 순간들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꼭 필요한 기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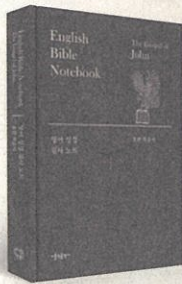
영어 성경 필사 노트



마태오 복음서
3만원



마르코 복음서
1만8천원



요한 복음서
2만원

영어 성경 필사가 필요한 3가지 이유

필사를 통해 성경을 묵상하면
신앙심이 깊어집니다.

영어의 문장 구조, 단어, 표현을
익힐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하므로
기억력, 자신감이 증진됩니다.

가톨릭북플러스 OPEN

신앙의 깊이를 더하다, 가톨릭북플러스 웹진

신학, 철학, 교회사, 성경, 영성, 교리, 예술 ...
가톨릭출판사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신앙 콘텐츠를
온라인 매거진 '가톨릭북플러스 웹진'에서 만나 보세요.



www.catholicbookplus.kr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댕치십시오!”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일시	미사 시간
	1/1(수)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주일학교통합미사) 오전 11시, 오후 6시

● 세례식 : 1월 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30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절연습 : 1월 4일(토) 오후 6시 미사 후
 ※ 예절연습에 대부분님과 함께 참석 바랍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11월~12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주형진	토마스	1-1	홍희경	세라피나	1-2
정성환	레오	1-2	김재광	빈첸시오	2-2
김도윤	미카엘	2-2	조윤희	리나	3-4
유소은	레베카	5-1	황지영	마리스텔라	5-3
변지영	크리스티나	6-5	박혜옥	실비아	7-1
박은서	율리아	7-4	김지훈	요한	9-1
손미나	세라피나	10-2	양종석	프란체스코	11-3

● 전입교우환영식 : 12월 29일(주일) 교중미사 중

● 성모신심미사 : 1월 4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1월 5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연령회 미사 : 1월 7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1월 21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연희동성당 복사단 겨울스키캠프

일시 : 1월 14일(화) ~ 16일(목) / 용평

● 구역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 판매합니다.

일시 : 12월 28일(토) 오후 3시 ~ 29일(주일)

가격 : 떡국떡(1.8kg) 10,000원/만두(김치, 고기) 13,000원

●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결산 보고서(양식은 사무실에 비치)와 회계장부 및 영수증을 1월 26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분기 전신자 성서책 읽기

1. 희망의 순례자들

2. 하루 10분 주님과 가까이

3. 그 말이 듣고 싶어서

※ 도서를 구입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12월 29일(주일) ~ 1월 12일(주일)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12. 22)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률	2023년 납부율
2,004	842 (42.0%)	814 (41.0%)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4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12월 16일~22일)

곽선모	오천원	익명	오십만원
김태균	일만원	이상현	일십만원
익명	삼십육만원	김영종	일십만원
이태호	일십만원	우성택	오십만원
함영동	일만원	이중호	일십만원
원정순	오만원	김경만	삼십만원
2구역5반	일십만원	익명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대림 제4주일)

교무금.....13,990,000원

주일헌금.....5,937,000원

입당	114	봉헌	100,212,512	성체	498,499,501	파견	113
----	-----	----	-------------	----	-------------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